

# “공사비 현실화 해달라” 대국민 호소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 정착해야”

군산전문건설협회, 건설업계 생존권 확보 촉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 소속된 군산시전문건설협회(회장 고성식, 광성건설 대표) 회원들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에 참여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날 고성식 회장을 비롯해 전문건설협회 회원 20여명은 노후 인프라 시설 개선을 통한 국민의 안전문제 해소와 부족한 공사비에 따른 건설업계의 생존권 확보를 촉구했다.

협회 측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가 m<sup>2</sup>당 건설비는 미국(433만원), 일본(369만원), 싱가포르(211만원), 한국(163만원)이다.

이와 관련 건설단체총연합회는 그동안 수차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3만여 회사의 연명으로 탄원서도 제출하고 호소문도 전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낙찰률 10% 포인트 이상 상향, 300여만㎡ 공사 포

주시장단가 적용 배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법정 제수당 반영 등이 포함됐다. 고성식 회장은 “바쁘신 가운데 멀리

서울까지 대국민호소대회에 참여해주신 협회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번 집회를 통해 전국 800만 건설가족의 생존이 달린 절박함을 알리고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 정착으로 공공시설물의 품질과 국민의 생활안전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또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지역 영세 건설업체들이 대기업 시설통사 수주를 하려면 낙찰률이 기준가보다 낮아 별 이득이 없다”며 “상생을 외치는 지역 대기업이 영세한 건설업체의 현실을 알고 일 한만큼의 댓가 제대로 인정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 소속된 군산시전문건설협회(회장 고성식, 광성건설 대표) 회원들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에 참여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 군산시보건소, 호원대에서 세계 금연의 날 홍보활동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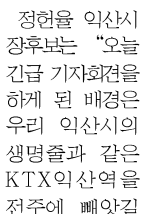
군산시 보건소(전형태 소장)는 지난 달 30일 호원대학교에서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해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올해로 31번째를 맞은 세계 금연의 날은 매년 5월 31일이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올해 ‘흡연 스스로를 죽이고 타인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라는 새로운 슬로건으로 흡연이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입힌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시 보건소도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인형극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날은 군산시민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슬로건 문구를 이용해 흡연에 대한 피해를 홍보하며 흡연자를 대상으로 CO측정, 니코틴 의존도 검사 및 니코틴 보조제 사용방법 등을 안내하며 아동 상담을 실시했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매년 5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임을 강조하면서 흡연에 대한 피해를 알리고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쾌적한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금연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기자

## 정현율 시장 후보, “전북 혁신역 신설 반대 투쟁 선언”



정현율 익산시 시장후보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은 우리 익산시의 생명줄과 같은 KTX익산역을 전주에 빼앗길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정 후보는 “저는 토론회에서 정부가 전북혁신도시역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용역을 즉각 중단할 것

을 강력 촉구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 후보는 지난 해 논란이 되었고 KTX혁신역신설추진반대 투쟁위도 구성되어 혁신역 범 시민 반대 투쟁을 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한 이춘석 의원을 비난하며 “시민들에게 이젠 속지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지역의 분란을 조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대시위를 촉구 바 있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민주평화당 도·시의원과 함께 전북 혁신도시역 신설 결사 반대 투쟁선언을 한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익산=정양원기자

## 익산 농생명 공동협의회체 발족

지난달 31일 원광대학교 대학본부 4층 제1회의실에서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원광대학교(산학협력단) 4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 농생명 공동사업협의체 발족식을 성료했다.

이날 발족식은 지난 4월 5일 4개 기관이 농식품분야와 첨단스마트농업 및 농생명 청년창업 활성화 분야에 대해 상호협력의 목적을 한 업무협

약을 후속 이행절차로 진행된 것이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원광대학교가 각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각 기관이 1년씩 간사기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익산 농생명 공동사업협의체는 분기별 회의 개최와 동시에 지역 농생명 산업 발전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익산시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원광대학교의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익산=정양원기자

## 전국체전 준비상황 점검

지난 1일 김철모 익산시장 권한대행은 133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장애인 체전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 개·폐회식장인 익산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금마추구장, 야구장 등 경기장을 방문하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공사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경기장 공사현장을 찾은 김철모 익산시장 권한대행은 막바지 공사 중인 익산종합운동장과 종목별 경기장 공사 진행에 대해 보고받고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겨 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많겠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특히 안전사고와 화재예방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장 현장점검을 마치고 전국체전 기간 선수와 임원 등이 사용할 웨스턴라이프호텔 신축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공사 관계자들에게 9월 말까지 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반드시 완공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폐회식이 열리는 익산종합운동장은 90%의 공정률로 현재 육상 트랙 우레탄 마감 공사, 내·외부 도장 마감 공사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등 막바지 공사가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 금연사업 우수기관 현판식

원대병원 전북금연지원센터에서 부작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 전북금연지원센터(센터장 오경재)는 최근 제31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을 맞아 우수기관 현판식을 거행했다.

이날 현판식은 최두영 병원장을 비롯하여 김태균 진료처장, 김중윤 행정처장 등 주요 보직자와 센터 관계자를 포함한 약 30명이 참석하여 2018년 지역금연지원센터 사업 성과대회에서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 중 3년 연속 전국 최우수센터로 선정된 전북금연지원센터의 노고 치하와 함께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여한 우수기관 현판 부작 순으로 진행되었다.

최두영 병원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전라북도 금연사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센터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우리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금연지원센터 오경재 센터장은

“센터를 지원하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 덕분에 연속해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소임을 가지고 흡연자들의 건강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매년 5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흡연의 심각한 피해를 알리고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세계 금연의 날”로 정하였으며, 기념일에 맞추어 국가 및 기관별로 기념식과 금연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전북금연지원센터 강지숙 분과장(원광대 간호학과 교수)은 금연의 시가지대에 있는 여성 흡연자와 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한 금연사업 활동을 기획·추진함으로써 전북도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익산=정양원 기자

## 군산시간여행축제, 시민 참여형 축제로 탈바꿈

프로그램·퍼레이드 분야에서 시민참여 공모 5건 선정

군산시간여행축제가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도시 축제로 탈바꿈시켜 성공적인 행사를 예고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근대교육관에서 열린 시간여행축제추진위원회에서 군산시간여행축제 시민 참여형 공모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및 퍼레이드 분야에서 시민참여 공모 5건을 선정 완료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심사대상은 축제 프로그램 운영 부스 운영, 퍼레이드 참여자 모집 공모에 대한 3개 분야 총 65건으로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15건 중 2차 최종 심사에서 축제 프로그램 분야 2건, 퍼레이드 분야 3건이 선정됐다.

또 이밖에 부스 운영 분야에서 선정되지 못한 8건에 대해서는 제안한 내용 등을 축제 콘셉트에 맞게 보완을 한 후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2018 시간여행축제 시민참여형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세부 사업계획서를 받아 타당성 검토 후 사업별로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축제 프로그램 분야에는 1970~80년대 범죄 실화극인 수사반장을 모델로

한 ‘지문채취, 혈흔 채취 등을 콘텐츠로 유·초·중고생들이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1박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야간시간대 과학원리 체험인 ‘1980 아학하자’ 과학공부)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대적으로 엮어 경음악 락밴드 보컬을 통해 추억을 선사하는 ‘그때 그 시절 이야기’가 선정됐다.

다음으로 퍼레이드 분야에는 1950년대 배경인 6.25 전쟁 당시 출병한 군산출신 학도의용군의 활약을 재현하는 ‘학도의용군 퍼레이드’와 다인승 자전거 버스를 이용한 개항기 신문물 전파를 재현하는 시대별 콘셉트 퍼레이드, 과거·현재·미래와 상상속 어린이들의 모습을 의상으로 연출하는 ‘어린이 시대별의상 퍼레이드’ 3건이 최종 선정됐다.

군산시는 축제 개최 전까지 플리마켓 모집 공모, 먹을거리 부스 모집 등 다양한 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위 공모사업 선정 결과는 군산시간여행축제 홈페이지(festival.gunsan.ga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정훈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